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부국장

폭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10월호에서 ‘폭염’을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올여름 폭염은 ‘펄펄 끓는 9월’로 이어져 추석이 지나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기상청은 역대급 9월 더위라고 말한다. 추석 연휴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열대야도 속출했다. 이 글은 서울 기온이 34.6℃까지 치솟은 9월 11일 <매일노동뉴스>로 보는 폭염 직업병에 대한 기록이다.

체는 40℃ 쓰러진 청년노동자, 그날엔

9월 11일 오전 11시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분향소에는 지난 8월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27살 양준혁 씨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들을 잃고 상복을 입은 어머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지켜보겠다”라면서 삼성전자의 사죄를 받아들였다. 한 달 전 준혁 씨의 죽음을 전한 날을 기억한다. 사고 당일 34℃까지 치솟던 오후, 중학교 화단에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된 준혁 씨의 충격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신느냐, 마느냐로 기자들과 작은

논쟁을 벌였더랬다. 사진은 유족을 대리하던 공인노무사가 전해준 문서에 있었다. 유족은 그 사진을 에어컨을 설치하던 삼성전자 하청업체로부터 사고 당일 받았다고 한다.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냉각모자라도 달라고 호소했던 준혁 씨가 그날 오후 4시 40분쯤 비틀거리며 알 수 없는 말을 하다 밖으로 뛰쳐나간 뒤 찍힌 사진이다.

하청업체 팀장은 이날 5시 10분쯤 화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준혁 씨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내며 ‘혹시 정신질환이 있느냐’고 묻고 준혁 씨를 데려가라고 했다고 한다. 업체 측은 준혁 씨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느냐고 다그쳐 물은 뒤에야 신고했고 5시 40분쯤 병원으로 이송됐다. 준혁 씨는 병원에서 결국 숨을 거뒀다. 사망진단서에는 체온이 40℃ 이상이었을 것으로 기술됐다.

준혁 씨 사망 원인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체온 상태가 되면서 발생하는 신체 이상을 말한다. 40℃ 이상의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무한증(땀이 나지 않는 것)을 동반한다. 열사병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대개 의식장애·어지러움·구역질·평행장애 같은 전조 증상을 보인다.

폭염 속 휴식 의무에도 또 쓰러진 작업자들

<매일노동뉴스> 9월 11일 자 톱기사의 제목은 “땀별 방치”에 청년노동자 ‘또’ 쓰러졌다”였다. 서울 방배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졌던 대학생 김아무개 씨(24)의 이야기다. 김 씨는 준혁 씨와 같은 열사병으로 지옥을 오갔다. 사고는 7월 30일 일어났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2시간 가까이 철근을 날랐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9℃를 기록한 날이다. 김 씨는 오후 5시께 ‘이상 신호’를 느꼈다.

철근을 옮기던 중 얼굴에 열이 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선배 작업자에게 “힘들다”고 호소했으나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빨리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오후 7시까지 작업은 이어졌고, 그때까지 자재를 옮기던 김 씨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혼자 여기저기 뛰어나다니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땅을 짚으면서 “잡았다”고 헛소리 같은 말도 했다. 김 씨가 의식을 잃은 것은 7시 20분께였다. 그런데도 원·하청 관계자들은 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김 씨를 그늘로 옮겼지만, 선배 작업자들은 “더워 먹은 거”라며 작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현장 팀장은 쓰러진 지 40분 만에 김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때까지 119 신고는 없었다. 오후 8시 15분 병원에 도착한 김 씨의 체온은 이미 39℃가 넘었다. 약물을 투여해도 체온은 40.7℃까지 올랐다.

김 씨 아버지는 의사한테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데려오지 않았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해병대를 전역하고 체대를 다녔던 김 씨는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김 씨는 이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현재는 회복 후 산재를 신청한 상태다.

‘폭염노동 예방법’ 통과에도 법과 현실의 괴리

양준혁 씨와 김 씨는 20대의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땀별 노동’으로 녹아내렸다. 준혁 씨는 출근 첫날, 김 씨는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폭염노출 작업은 ‘신규 배치자’에게 특히 위험하다. 인간의 신체는 외부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 고온 순화(Heat Acclimatization)가 필요하다. 열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시간으로 통상 12~14일가량 고열작업 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려 가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역시 신규 배치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1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사실 9월 11일 <매일노동뉴스> 편집계획에는 있었으나 실리지 못한 기사가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는 ‘폭염노동 금지법’ 혹은 ‘폭염노동 예방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9건이 상정돼 있었다. 다른 법안 논의에 밀려 이날 처리되지 못하면서 기사도 쓰지 못했다. 여야가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놓고 대립한다는 속사정만 전해 들었다. 「폭염노동 예방법」은 다음날, 여당 안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발생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를 추가했다. 사업주의 폭염노동 예방 의무가 권고(고시) 수준에서 법령으로 승격했다는 사실 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만약 야당 안처럼 폭염 작업중지권이 법제화됐다면 어땠을까. 준혁 씨나 김 씨가 과연 출근 첫날 ‘작업중지권’을 선택해, ‘살인더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보다는 신규 배치자의 고온순화를 의무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온열질환 응급처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손봐야 하지 않을까. 폭염은 현재진행형이다. 🌧